

3. 경제지표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제성장률 (%)	6.21	6.81	7.08	7.02	2.91
명목GDP (십억\$)	201.33	220.38	241.27	261.64	271
1인당 GDP (PPP, \$)	6,573	7,155	7,771	8,041	8,200
1인당 명목 GDP (\$)	2,172.01	2,353.36	2,551.12	2,739.82	2,779
정부부채 (% of GDP)	59.66	58.22	55.56	55	55.3
물가상승률 (%)	2.67	3.52	3.54	3.6	3.23
실업률 (%)	2.33	2.21	2.21	2.21	2.26
수출액 (백만\$)	176,580.82	215,118.6	243,483.28	264,189.37	281,471
수입액 (백만\$)	174,978.37	213,215.32	236,687.92	253,070.92	262,407
무역수지 (백만\$)	1,602.45	1,903.28	6,795.36	11,118.45	19,064
외환 보유고 (백만\$)	36,527.29	49,075.57	55,452.62	78,334.84	81,120.29
이자율 (%)	6.5	6.25	6.25	6	6
환율 (자국통화)	21,935	22,370.09	22,602.05	23,050.24	22,760

<자료원 : World Bank, 베트남중앙은행(SBV), 베트남통계청(GSO)>

경제 동향

2020년 베트남은 GDP 성장률 2.91%를 기록하며 세계 경제가 팬데믹으로 침체한 가운데 성장을 이룩한 소수 국가 중 하나로 남았다. 경제 성장률은 10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된 주변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해봤을 때 성공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평할 만하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GDP 규모 3,430억 달러를 기록하며 아세안 경제 4위 국가로 성장하는 성과를 이룩했다.

※ 2011 ~ 2015년 평균 성장률 : 7.3%, 2016 ~ 2022년 평균 성장률 : 8.1%

베트남의 산업생산지수 역시 지난 10년 사이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3.36%로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광업부문(특히 원유, 천연가스 채굴 등) 생산이 7.8% 감소하여 산업생산 전반의 하락을 유도했으나, 제조·가공업 생산이 전년대비 5.82% 성장하며 산업생산 전반을 견인했다. 이 가운데 휴대전화기 부품(22%), 텔레비전(20.7%), 가전제품(17.7%) 등 전자기기 생산이 증가하였다. 아울러, 세정제와 같은 위생용품(19.5%), 야채 및 과일 가공품을 비롯한 가공식품(14.7%), 의약품 및 화학제품(27%) 등 특정 품목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전년대비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20년 대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FDI) 총 투자 금액은 235.8억달러(전년 동기 대비 25%↓)를 기록하였고,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36억 달러를 유치하며 전체 투자신고금액의 47.7%(1위)를 차지하였다. 이어서는 전력 발전 및 공급 산업이 51억 달러로 전체 투자신고금액의 18%(2위)를 기록하였으며, 산업성장 전반에 따른 전력소비의 증가와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투자 증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0여 년간 대베트남 3대 FDI 국가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로 투자 기류가 뚜렷했으나, 미-중 무역 분쟁 이래 2019년부터 중국, 홍콩, 대만의 대베트남 투자가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최근 5년 사이 현지에서 이미 설립된 기업을 매입하거나 지분을 투자하는 브라운필드 투자가 증가했다. 이는 2016년 베트남 투자법 상 외국인 투자자의 베트남 기업 지분 인수 및 합병 규제가 크게 완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브라운필드 투자 증가는 베트남 내수 시장의 성장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제 전망

올 한 해 베트남의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한 해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World Bank(6.8%), Asian Development Bank(6.1%), HSBC(7.6%) 등 다수의 국제금융기구는 2021년 베트남의 성장률 예측치를 내놓았고 응우옌 쑹 폭 총리는 역시 올해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을 6.5%로 설정했다. 다만, 1분기 성장률은 정부 목표치 5.12%에 부족한 4.48%에 마감되었기에, 잔여 3개 분기에 더욱 높은 목표치를 달성해야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전년 대비하여 농수산업과 제조업의 개선이 나타났으나, 서비스업은 아직 미진한 결과를 보이고 있기에, 서비스업에 대한 회복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분기 입국자 403만 명에서 2021년 1분기 입국자는 1.9만 명으로 서비스수지의 가장 악영향은 코로나로 인한 여행객 입국 불가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해외여행객 입국과 관련하여, 베트남 정부도 Vaccine Passport 도입을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3개 분기에 대하여 7% 대의 성장이 필요한 베트남 정부가 경우에 따라서 한정 지역에 대한 개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일반-경제지표)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